

# “천년역사 공부하면 천년살고...”

## 산문박의 禪

### 간송미술관서 30년 최완수 실장

‘간송(澗松)이 만든 문화재 사원에 서 도를 닦는 제가승’.

최완수씨(崔完秀) 간송미술관학예실장)를 두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만도 20점이 넘게 소장돼 있는 간송미술관은 우리나라 문화사 그 자체다. 우리 선대가 살아 온 유구한 시간이 고스란히 명백히 있는 이 미술관 연구실에서 최씨는 강산이 세번 변하는 시간을 살았다. 도를 닦으며.

범취 있는 과거에 새로운 빛을 쬐고 그 이름을 밝히고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그가 닦는 도의 내용이다. 지난 4월로 간송미술관과 인연 맺은지 꼭 30년이 됐지만 그에게는 시련통한 의미일 수 밖에 없다. ‘해야 하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뒤돌아 볼 새도 없이 살아 왔을 뿐이므로.’

‘천년의 역사를 공부한 사람은 천년을 산 것이고 2천년의 역사를 공부한

다. 남다른 흥기에 책 보고 연구하는 자세를 가진 것 그리고 현장을 찾아다니는 열성은 천부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는 스승복이 있다. 이미 고등학교에서 백이(白牙) 김장현 선생을 만나 한학과 보학(譜學)을 배우며 선비의 풍모를 갖추고 대학에서는 동민(東溟) 김삼기 선생으로부터 동양사와 불교사를 배웠다. 그리고 문화재를 보는 심미안을 심어준 스승은 최고의 경지를 공인 받았던 해곡(海谷) 최순우 선생이었다. 당대 최고들로부터 청춘어람이 최씨라는데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이다. 물론 그는 타고난 재량과 스승

**“경전을 씨줄삼고 역사를 날줄 삼아 학문의 베를 짜야 한다”**



간송미술관 학예실장 최완수

# “유물·유적 오늘을 사는 지혜 일러주는 실물”

## 제분야 정점서면 견성... 격물치지 자세로 노력

사람은 나이가 이천살이 된 겁니다. 역사공부는 과거 사람들의 삶을 지금 사람들의 삶으로 옮겨오는 일입니다. 유물 유적은 과거 사람들이 남긴 과거의 모습이지만 그것 역시 오늘의 사람들이 오늘을 사는 지혜를 배우는 실물입니다. 역사를 사랑하는 것은 오늘을 사랑하는 일이지요.”

그는 대학을 나온 직후 국립박물관 연구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당황하게도 관장에게 지방으로 보내달라고 졸랐다. 문화재를 직접 보면서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경주 부여 공주 등 도시지체가 박물관인 고도들을 돌며 새벽부터 도시락을 싸고 유물 유적을 찾아 다녔다. 그렇다. 남다른 노력없이 옛 사람들의 숨소리를 듣고 마음을 읽어내는 심미안이 생겼겠는가.

“문화재를 보는 눈을 갖추는데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감이 예민해야 하고 현장을 많이 답사해야 하죠. 또 학문적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훌륭한 스승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씨는 복을 타고났

으로부터의 배움을 자기화 하는데 밤을 지새우는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다. 추사연구나 곁재 정선연구에 독보적 존재로 부각되는 등 그의 연구성과 뒤에는 ‘경경위사(經經偉史)’란 좌우명이 있다.

추사와 경봉스님 간송 전형필 선생이 시대를 넘기며 화두로 삼았던 정신이다. 이는 경전(經典)을 씨줄로 삼고 역사를 날줄로 삼아 학문의 베(인생)를 의미하기도 한다)를 짜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의 삶에 지혜가 드러난다는 설명뒤에 최씨는 “현대의 학문이 인간의 마음을 오히려 웅색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개탄도 내보냈다.

“더러 불가에서 경성의 경지를 얘기합니다. 경성이란 어떤 분야에서든 그 정점에 다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득 울라서 보면 모든 것이 환하게 내려다 보이는 곳이 그곳이지요. 마치 큰 산꼭대기에서 이리저리로 내리 뿜은 계곡들을 조망하듯. 하나의 정상이 정상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계곡과 능선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 불상이건 탐이건 진면목 보려면 옛 사람 마음 읽어야

요. 그들을 다 섭렵하지 않고 어떻게 정상의 시원함을 풀린 머금을 수 있겠습니까. 경성이란 이치를 두루 꿰뚫어 내는 것입니다.”

최씨는 역사를 공부하는데 있어 격물치지(格物致知)의 자세를 무엇보다 중시한다. 물론 격물치지를 이룬 단계를 견성의 단계로 보고 있다. 견성이건 탐이건 불상이건 그것의 진면목을 보기 위해서는 옛 예인(藝人)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상의 이치와 상징의 이치 등을 두루 꿰뚫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최씨는 거듭 강조했다.

최씨는 격치(格致)를 소홀히 하지 않음으로 곁재의 그림을 보는 순간 곁재의 숨소리를 듣고 추사의 필체를 보

는 순간 추사의 정신을 오롯이 사색하는 재미를 맛보는 것인가. 그는 지난 30여년 수 없이 많은 옛 사람들로부터 무언의 가르침을 받아왔다. 과거의 스승과 현재의 스승들이 최완수란 거인을 만든 셈인데 그 동안(童顏)의 거인은 이제 그간의 공부를 체계적으로 정리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계획이라고 밝힌다. 당대 최고의 스승들이 전수해준 의발(依鉢)을 후세의 대중들에게 골고루 전해주는 작업일 것이다.

젊은 날에 간송의 먼지 덮힌 미술품 속에서 <대장신수대장경>을 보고 ‘한 10년 읽을 만 한 책이구나’ 하며 성복동으로 몸을 옮겼던 열정이 아직 조금도 식지 않았다. 대학 입학식에 한복을 입고 나가 주목 받았고 지금도 그는 한복만 입는다. 우리의 문화란 우리의 의식주이기 때문이다. 그가 <명찰순례>를 내놓은 이유도 사찰이 우리 문화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곳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다.

임연태 기자

### 육식을 많이하면 좋지 않지요

문) 중생이 사는 이 사회를 불국토로 만들어 가지면 중생이 서로를 아끼고 특히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구나 살생은 좋지 않은 인과를 낳게 될 것이므로 육식을 많이하는 것은 정토건설에 역행하는게 될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영민·서울 종로구 수송동)

답) 물론 살생을 해서는 안되지요. 그러나 한가지는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젠기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잘 아시다시피 생명체는 연쇄적인 먹이사슬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생명체를 취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어떤 생명체는 종족의 번식을 위해 일부러 다른 생명체의 먹이가 되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먹이사슬 속에서 살생을 취미 삼아 하느냐 자연의 섭리에 따르느냐가 중요 합니다. 또 생명의 유지를 위해 다른 생명을 취하는 경우에 그 희생되는 생명체의 무명을 벗겨주는, 그래서 한 차원 높여준다고 한다면

대신해주지도 않고 대신해 줄수도 없고 빈다 고 되지도 않고 그밖에 무슨 방편을 쓴다해도 나를 떠나서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무슨 절대자를 내세워 거기에 매달리라고 하는데 구원은 내가 저를 구원하는 것이지 그 밖에는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옛말에 ‘네가 주장자가 있다면 내 주장자를 줄 것이요 네게 주장자가 없다면 내가 빼앗으리라’ 했답니다.

내가 세상에 나왔으니 우주가 벌어진 것이 지 내가 없다면 우주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독존인 것이지요.

그러니 어디가서 도를 찾겠습니까? 도는 내 속에 있고 내가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밖으로 찾고 뭔가 신기한 것, 특별한 방편이 있어야 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첫째로 ‘농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치닫는 마음을 놓아라, 방 하착하라는 말이지요.

그러나 농오라니까 어디다 놓느냐고 합니다. 본래 들은 것이 없으니 놓을 것도 없지만 원동 생각에 그달리거나 너의 근본에 놓아라 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근본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나를 이끌고 있는 그 주체는 무엇인가? 할 때에

**지 상 상 담**

**길 들 묻 는**

**이 에 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 히 신생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신·팩스로 보내주시시오. 필수로 연락처로 중 담에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미불교연대 협회 주관하 고 답을 통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그것을 살생이라고만 하겠습니까?

특히 공부하시는 분이려면 그 생명체를 취 해 나의 생명으로 혼합시켜 내 생명, 내 삶, 내 마음으로 하나되게 하고 공부 열심히 하여 진리를 터득한다면 그대로 하화중생 하신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되면 그것은 생명을 죽인게 아니라 생명을 건진게 되겠지요. 따라서 살생해서는 안된다 하지 마시고 그 생명을 건지는 마음으로, 그 무명을 벗겨 보 살로 화하게 하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함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받아들였다 면 그야말로 받아들인 사이가 없으니 살생해 선 안된다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 니다.

경전 말씀에 약으로 쓰는 경우 육식을 허 용했는데 그건 바로 서로가 서로를 구하는 도리라고 할 수 있지요.

### 육도운회를 벗어나는 방법은

문)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불자라면 중 내에는 대각을 이루어 부처가 되겠다는 꿈을 지녔을 것입니다. 스님, 어떻게 해야 육 도운회를 벗어나 수 있는 지 도를 닦는 방법 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미·포항시 남구 동촌동)

답) 나는 여지껏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 다. 공부를 위해서든 생활을 위해서든 오직 나의 근본인 주인공을 믿어 일체를 거 기에 놓고 관하고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 다.

공부든 생활이든 내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걸 아무리 사랑분별하려해도 알 수가 없습 니다. 그러나 나무가 있으면 보이지 않아도 뿌리가 있음을 믿듯이, 작년의 공수를 심었다 데 작년 공수는 어디로 가고 풍나수가 무성 해져 울해 공수가 주렁주렁 달렸듯이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 속의 진짜 내 뿌리와 씨가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다면 바로 그 자리에 놓으라는 것 이지요. 나는 그걸 주인공이라 이름했습니다. 이름이야 아무런 연이 없습니까? 불자님께서 취향대로 이름을 붙여도 좋겠지요. ‘내속의 부처님’ 하셔도 좋고 ‘하나뿐인 내님’ 하셔 도 좋고 그냥 ‘내님’ 하셔도 좋습니다.

그때 믿었으면 놓고 놓았으면 지켜보라고 합니다. 놓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되었으면 조 령게 되었으면 한다면 그건 놓은게 아니라 붙잡은 것이요 또하나의 사랑분별인 것이지 요. 놓을 때는 확!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하 라는 배짱으로 놓아야지요. 가려한 인인이 주인 을 못믿어서 말로는 믿는다 해놓고 이런저런 군말이 많다면 그게 믿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지수화풍 사대로 구성 되어 있고 우주도 세상만물도 지수화풍 사대 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대를 바탕으로 누구나 광력·지력·전력·통신력을 충만 히 가지고 쓸수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니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결과 가 됩니다. 자기가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기 가 주인이 되지 못할 때 공부인을 제대로 되 겠습니까?

내 몸속의 생명들이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일체를 놓 고 맡기세요. 내가 주인이요 독존입니다.

# 성명서

## 요구 사항

1. 이사장스님은 이전불사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밝히고 올 상반기에 김포 금정사 부지에 착공하겠다는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2. 학교 이전불사금으로 책정된 금액은 차질 없이 집행하고 향후 재원 조달 방안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근본적으로는 학교법인 자산을 마련하라.
3. 공개적 논의와 검증을 거치지 않고 이사장스님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방적이고 전격적으로 결정한 확장선임을 즉각 철회하라.
4. 현 안암동 불사를 여름방학중에 조속히 마무리 짓고 도량을 정비하라.
5. 명실상부한 중립학교로서 위상을 갖추고 질서 있는 수행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자금을 인상하여 전액 지원하고 학인들의 등록금을 전액 증비로 하라.
6. 총무원장스님께서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학교운영을 시정하고 학교법인의 고유한 독립성과 자주성을 보장하라.
7. 종단 정치변화에 상관없이 학교법인의 고유한 독립성 속에 주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위하여 총무원장스님께서는 이사장 당연직으로 있는 중법을 개정하라.
8. 각교육기관들끼리 갈등 없이 조화롭게 발전하기 위하여 종단의 교육체계를 일원화하고 교육불사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지원하라.
9. 이사장스님께서는 학교제문 문제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실천할 의지가 없다면 이사장직을 사퇴하라.

불기 2540년 6월 4일

## 중앙승가대학 학생회

본교는 종단내외 무관심속에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한 뜻있는 학인스님들에 의해 1979년 설립되어 자생적으로 운영되어 오다 지금은 미약하나마 중립학교로서 종단 내외의 관심과 협조속에 운영 되어지고 있습니다. 숭한 어려움과 난관속에서도 불교의 발전은 승려교육에 있다는 일념하에 때론 비난도 감수하면서까지 눈물겨운 노력으로 불교를 대표하는 교육기관으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은 명실상부한 종단의 중립학교로서 종단과 이사회에서 학교측과 협조속에 책임감있게 학교발전과 교육불사에 매진해야 한다는 생각에 우리는 그 분위기 조성 위해 노력해 왔고 저희들의 목소리를 자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송월주 총무원장스 님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래 학교이전불사는 사실상 백지화 내지 무기한 연기상태에 놓여있고 학교 예산은 동결되었으며 학교정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불사 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하겠다는 이사장스님의 공약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사장님의 이전불사에 대한 의지와 약속이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음이 확인된 지금 저희 학인들은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소위 학인들의 피와 땀으로 탄생한 개혁종단의 책임자 가 당신의 편리에 따라 수없이 말을 바꾸어 왔습니다.

또한 저희 학교 최고 의결수령기구인 운영협의회는 건의사항이나 학인들의 의견과 질의 에 대해서 단 한번도 성의있는 답변이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 발전 에 대해서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에 저희 학생회에서는 이사장스님의 일방적인 학교 운영과 학교를 장악하여 학교발전을 저해하고자 하는 의도를 막아 학교의 자주성을 확보 하고 종단의 사찰이 걸린 교육불사가 원만히 회향되어야 종단이 발전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 한국불교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의 근원은 승가교육의 부재에서 기인한 다라고 뜻있는 분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의 체계화와 교육불사야말로 그 어떠한 종단사업보다 최우선 과제로 추진 되어져야 한다는 판단하에 저희 학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 우리들의 요구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